



보도시점 2024. 4. 22.(월) 배포 시 배포 2024. 4. 22.(월)

해외 산지의 '24년산 마늘·건고추 재배면적 증가로 향후 가격 안정화 기대되며, 마늘·고춧가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중

- ①공급 안정을 위해 수입 건고추 비축물량을 실수요업체(김치, 장류, 고춧가루 가공업체 등)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, ②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마늘·고춧가루 납품단가 지원 실시

< 보도 주요 내용 >

4월 22일(월)자 서울경제 「“마늘 없는 마늘통닭 나올 판”... 김장철 아닌데 양념 수입가 폭등」 기사에서 “김장철도 아닌데 국산도 아닌 수입 고춧가루와 마늘이 이렇게 비싼 건 난생 처음” 등 마늘 및 고춧가루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

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, 시장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공급 중입니다.

깐마늘은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(2,000원/kg)을 추진중이며, 고춧가루는 3월 11일부터 납품단가 지원(2,000원/kg) 중이고, '24.1월부터 시장 공급량 확대를 위해 건고추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및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.

수입산 마늘과 고춧가루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재고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, 중국 산지의 '24년산 마늘, 건고추의 재배면적이 증가(마늘 전년비 15.3%, 건고추 1.9%)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격 강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마늘·건고추 등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작황 점검, 기술지도 및 지원 사항 발굴 등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붙임 마늘·고춧가루 수입동향 및 국내 수급동향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신우식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장성두 (044-201-2236)



□ 마늘 · 고춧가루 수입 동향

관세청 '24.3월 주요 농축산물 수입가격 현황(잠정치)에 따르면, 수입산 냉동마늘은 전년비 53.0% 상승, 고춧가루 50.9% 상승한 반면 건고추, 냉동고추는 각각 11.9%, 6.2% 하락하였습니다.

마늘은 중국 산지 가격 상승, 국내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여 신선마늘 및 냉동마늘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.

* 신선마늘 수입량: ('24.2월) - (전년 0톤) → (3월) - (44)

* 냉동마늘 수입량: ('24.2월) 1,473톤(전년 2,322톤) → (3월) 1,043(2,573)

고춧가루는 중국 산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나,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건고추와 냉동고추는 중국 산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량이 2월 14,396톤에서 3월 16,783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
* 고춧가루 수입량: ('24.2월) 116톤(전년 217톤) → (3월) 95(202)

* 건 고 추 수입량: ('24.2월) 329톤(전년 316톤) → (3월) 420(410)

* 냉동고추 수입량: ('24.2월) 14,067톤(전년 17,113톤) → (3월) 16,363(21,685)

'24년산 중국 마늘 주산지(산동성, 하남성, 강소성)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5.3% 증가, 건고추 주산지(신강, 내몽고 등)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.9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□ 마늘 · 고춧가루 국내 수급동향

국내산 마늘은 재고량 증가 등으로 도·소매가격이 전·평년보다 하락세이며, 건고추는 '23년 생산량 감소로 전·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

깐마늘은 소비감소 등 영향으로 재고량 증가하여 도·소매가격은 전·평년보다 하락세이며, 저장·가공비용 상승 등으로 현시세 유지할 전망입니다.

* 소매가격 : (3.하) 9,654원/kg → (4.상) 9,069 → (4.중) 9,022(전년비 26.3%↓, 평년비 18.9%↓)

도매가격 : (3.하) 6,774원/kg → (4.상) 6,774 → (4.중) 6,751(전년비 15.3%↓, 평년비 3.7%↓)

고춧가루는 '23년 건고추 생산량 감소로 도·소매가격은 전·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, 수요 감소 등으로 현시세 유지할 전망입니다.

* 소매가격 : (3.하) 18,651원/600g → (4.상) 18,640 → (4.중) 18,659(전년비 13.9%↑, 평년비 20.4%↑)

도매가격 : (3.하) 13,464원/600g → (4.상) 13,452 → (4.중) 13,359(전년비 7.3%↑, 평년비 15.0%↑)